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독문 105번 감사절(1)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가 족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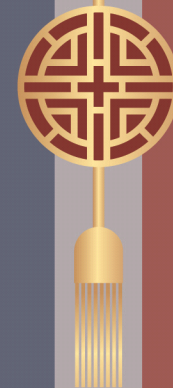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가 족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인도자 :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가 족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도자 :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가 족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자 :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가 족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



예 배 순 서

이번 추석에는 차례 대신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함 께

교 독 문 105번 (감사절1)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시편 128편 1-6절 다 함 께

¹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²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³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⁴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⁵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
을 보며 ⁶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 씀 식탁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가정 다 함 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계절인 추석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
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참된 복에 대해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
다.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이렇게 풍성한 명절 식
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의 은혜를 주셨기 때
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화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식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올리브나무)와 같습니다.
3절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묘사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를,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
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마주 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서운한 일도,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어린 감람나무로 단단하고 푸르게 자라나는 복된 가정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대를 이어 흘러가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축복합니다.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과 믿음의 유산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 세대를 거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족이 누리는 평안
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
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그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는 날로 끝
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 있는 우
리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기 도 문 다 함 께